

고진영·이민지 조, LPGA 다우 인비테이셔널 준우승

최나연·신지은 3위

고진영(24)-이민지(23·호주) 조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셔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이민지 조는 지난 21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 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만 12개를 몰아쳐 12언더파 58타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경기를 펼쳤다. 1, 3라운드 포섬(두 명이 공 하나를 번갈아 치는 방식), 2, 4라운드는 베스트볼(각자의 공으로 경기하는 방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신설 대회다.

이들은 마지막 날 12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21언더파 259타로 선전했다. 그러나 무려 27언더파 233타를 기록한 제스민 티다파 수완나뿌라(태국)-시드니 클랜튼(미국) 조에 막혀 우승컵을 내졌다.

수완나뿌라는 LPGA 투어 무대에서 개인 통산 2승째를 수확했고, 클랜튼은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최나연(32)-신지은(27) 조는 마지



막 날 9타를 줄여 20언더파 260타로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매 아리아 쭈타누간-모리아 쭈타누간(태국) 조도 공동 3위다.

전인지(25)-리디아 고(22·뉴질랜드) 조와 지은희(33)-김효주(24) 조는 18언더파 262타를 기록해 공동 6위에 올랐다.

뉴스스

이강인, 프리시즌 첫 경기 45분 출전...팀은 패배

발렌시아 마르셀리노 감독 "이강인은 우리의 1군 선수" 원론적 답변

소속팀에 이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이강인(18·발렌시아)이 2019-2020시즌을 대비한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 45분을 소화했다.

이강인은 21일(한국시간) 스위스 랑에서 벌어진 AS모나코(프랑스)와의 프리시즌 평가전 첫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전반 45분을 뛰었다.

최근 이강인이 소속팀에 발렌시아를 떠나고 싶다는 이적을 요청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차지하며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었지만 소속팀에서의 입지는 불확실하다.

이적 요청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다 많은 출전 시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을 거듭해야 할 나이인 만큼 발렌시아에서 벤치를 지키는 것보단 그라운드를 누릴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시즌 토트넘(잉글랜드)과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4



강전에서 명승부를 벌인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 박지성과 이영표가 붙었던 PSV 에인트호번,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반테, 에스파뇰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인과 발렌시아의 계약기간은 2022년 6월까지다. 바이아웃 금액은 8000만유로(약 1067억원)로 알려졌다.

이날 이강인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발렌시아는 0-1로 패했다.

한편, 마르셀리노 발렌시아 감독은 "이강인은 우리와 함께 하는 선수다. 구단은 감독에게 선택할 권한을 준다. 이강인은 내 선택 범위 안에 있다. 그는 우리의 1군 선수"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렸다.

뉴스스

양학선·여서정, 10월 세계선수권 간다...국가대표 발탁

2020년 도쿄올림픽 남녀 단체전 출전권 걸려

양학선(수원시청)과 여서정(경기체육고)이 10월 세계기체체조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대한체조협회는 19일과 20일에 걸쳐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대표 2차 선발전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10월에 열린 세계선수권에 출전할 남녀 대표 선수 11명을 추렸다.

남자 부문에선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등 6개 종목을 모두 뛰는 개인종합과 종목을 결선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협회는 총 엔트리 6명 가운데 4명을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양학선을 추천 선수로 발탁했다.

배가람(인천광역시청)이 81.801점을 획득, 1위로 대표팀에 발탁됐고 이정효(경희대·81.301점), 박민수(전북도청·80.899점), 김한솔(서울시청·80.833점)이 2~4위를 차지했다.

여자 부문에서는 이틀 동안 도마-이단평행봉-평준대-마루운동 4개 종목을 모두 치렀는데, 여서정이 개인종합 합계 106.650점으로 1위에 올랐다.

함미주(경기체육고·100.550점), 이은주(강원도체육회·100.050점), 엄도현(경기체육고·99.550점)이 2~4위를 차지했다. 이윤서(서울체육고)와 김주리(광주체육고)는 추천 선수로 발탁됐다.

오는 10월 4~13일 독일 슈투트가



르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엔 2020 도쿄 올림픽 남녀 단체전 출전권이 걸려 있다. 단체전 9위 이내 입상해야 도쿄 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

'보르도 이적' 황의조, 미국 워싱턴서 첫 팀 훈련 소화

프랑스 무대에 진출한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가 새 소속팀 지롱댕 보르도에서 첫 훈련을 소화했다.

보르도는 21일(한국시간) 구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첫 팀 훈련에 참가한 황의조의 모습을 공개했다.

황의조는 간단한 러닝과 헤더 연습을 하는 등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지난 18일 보르도의 전지훈련지인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그는 메디컬 테스트와 계약서 서명을 모두 마쳤다. 계약기간은 2023년 6월까지 4년이다. 등번호는 18번으로 결정됐다.

보르도는 "구단에서 뛰는 첫 번째 한국 선수"라고 소개하며 "공간 침투와 슈팅 능력이 좋다. 그라운드에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프로축구 성남 일화(현 성남FC)에서 K리그 무대에 데뷔한 황의조는 2017년 6월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로 이적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몸값이 올랐다. 중동과 중국 그리고 미국 무대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유럽 무대 도전을 위해 모두 거절했다.

보르도는 지난 시즌 리그와 20개 구단 중 14위에 머물렀지만 과거 지네딘 지단, 요양 구르퀴프 등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팀이다.

황의조는 다음달 11일 양재와의 리그 개막전에서 첫 공식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뉴스스

전남드래곤즈, 두 번째 멘탈 코칭 프로그램 운영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창명)가 최근 선수들의 긍정 심리자본을 증진시켜 최상의 멘탈을 가지고 후반기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Mental 코칭 프로그램 2번째 시간을 가졌다.

Mental 코칭 프로그램 시간에는 한국멘탈코칭센터 대표코치인 소해준 코치가 메인 강사로 나서 '탁월함을 창출하는 강점기반의 PLAY'라는 주제로 선수들에게 왜 강점에 집중해야 하고 약점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별로 이루어진 그룹 코칭시간에는 선수 본인의 강점과 다른 선수의 강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진정한 강점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찬희 선수는 "내가 보는 강점과 다른 선수들이 보는 강점에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강점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다. 오늘 코칭을 통해 내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약점은 관리를 통해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추신수, 다섯 경기만에 시즌 16호 홈런 작렬

'추추 트레인'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5경기 만에 홈런을 추가했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경기에 1번 타자 좌익

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낸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85에서 0.284로 조금 떨어졌다.

1회 첫 타석에서 휴스턴 선발 호세 우르퀴디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고, 두 번째 타석에선 달랐다. 팀이 0-2로 끌려가던 4회초 선두타자로서 우르퀴디의 5구째 86마일(약 138.4km) 체인업업을 공략해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시즌 16호포이져 지난 14일 휴스턴전 이후 5경기 만에 터진 홈런이다.

이후 방망이는 다시 침묵했다. 6회 2사 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9회에는 투수 땅볼에 그쳤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칠새미골,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